





## 새 계약

---

“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예레 31,31)

”

오늘 제1독서는

하느님을 버리고 이방인들과 그들의 우상에 의탁하여

멸망하고,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집안을

하느님께서서는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찾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을 노래한다.

하느님 편에서 먼저 나서서 이루어지는 이 계약은

시나이 산에서 맺었던 첫 계약과는 다르다.

이 계약은 돌이 아닌 마음에 새겨지는 계약이며,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불러오는 계약이다.



##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다

---

“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예레 31,34)

”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언제나 주님의 계명을 어긴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느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자격이 없는 상태이다.

결국, 하느님 편에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하시는 것,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된다.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당신이야말로 그들의 하느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새 계약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





## 새 계약의 잔

“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루카 22,20)

”

신약성경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계약에 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선언하며,  
오늘 제2독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새 계약을 위한 중재자,  
곧 새 계약이 이루어지게 만든 진정 위대한 대사제이심을 설파한다.

이러한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신 것은  
하느님의 뜻에 철저히 자신을 맞추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신 십자가 위에서이다.





## 아버지 이름의 영광

“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요한 12,28)

”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 모두가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 = 새 계약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요한 12,28)

”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계약을 맺음으로써  
그를 믿는 이들을 모두 구원으로 이끄시겠다는 말씀이다.

곧, 아들의 죽음으로 모두의 죄가 속죄되어야

비로소 참된 구원이 가능하기에



십자가야말로 주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이다.



##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 12,24)

예수님이라는 밀알은 땅에서 죽음을 맞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어  
모두를 구원으로 이끌고,  
그를 통하여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고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이들,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지만  
그 역설적인 진리를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하는 듯하다.

사순 시기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다시 한번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짐으로써,  
또한 하나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동참해야 하겠다.

